

호랑이 황금장갑 3개 껴다

투수 윤석민·2루수 안치홍·외야수 이용규 수상

윤석민 MVP 이어 골든글러브까지 휩쓸어 최고의 해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25)이 이번 시즌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에 이어 골든글러브까지 휩쓸며 2011년을 최고의 해로 장식했다.

윤석민은 11일 강남구 대치동 SETEC 제1 전시장에서 열린 2011년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야구 담당 기자 등 투표 결과 유효표 306표 중 189표(득표율 61.8%)를 얻어 오승환(29·삼성·113표) 등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투수 부문 황금 장갑에 입을 맞췄다.

윤석민은 올해 정규리그에서 다승(17승), 평균자책점(2.45), 승률(0.773), 탈삼진(178개)에서 1위에 오르며 1991년 선동열(현 KIA 감독) 이후 20년 만의 투수 4관왕을 달성했다.

올 시즌 5월과 7월 등 두 차례나 월간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던 윤석민은 지난달 압도적인 지지로 시즌 MVP로 선정된 데 이어 골든글러브까지 획득했다.

외야수 부문에서는 최형우(28·삼성·286표), 손아섭(23·롯데·157표), 이용규(26·KIA·150표)가 황금장갑의 주인공으로 뽑혔다.

올 시즌 홈런(30개)·타점(118점)·장타율(0.617)에서 1위에 오르며 타격 부문 3관왕



에 오른 최형우는 외야 부문 수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표(93.5%)를 얻었다.

이용규(37·LG)는 손아섭과 이용규에 비해 50여표 정도 적은 102표를 얻는데 그쳐 골든글러브 7회 수상에 아쉽게 실패했다.

1루수 부문에서는 타올(0.357), 출루율(0.435), 최다안타(176개) 부문을 석권한 '국민 거포' 이대호(29·롯데)가 272표를 얻어 수상자가 됐다.

이대호는 올 시즌 간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타격 전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2006년, 2007년, 2010년에 이어 골든글러브 4회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2루수 부문에서도 안치홍(21·KIA·198표)이 오재원(26·두산·91표)을 더블스코어 차이로 밀어냈고 3루수 부문에서는 최정(24·SK·206표)이 압도적인 표 차로 골든글러브를 안았다.

격전지로 뻤던 유격수와 포수 부문에서는 이대수(30·한화)와 강민호(26·롯데)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이대수는 127표를 받아 김상수(21·삼성·111표)를 16표 차로 극적으로 제쳤고 강민호(216표)가 양의지(24·두산·67표), 조인성(36·SK·23표)을 예상 외로 크게 눌렀다. '패남아' 홍성흔(33·롯데)은 지명타자 부문에서 223표를 끌어다가 2위 김동주(35·두산·61표)를 밀어내 골든글러브를 뽐내 안았다.

홍성흔은 2001년과 2004년에는 포수로, 2008년부터는 지명타자로 4년 내리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올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삼성은 3명의 후보 중 1명 수상에 그친 반면 정규리그에서 2위에 오른 롯데가 가장 많은 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KIA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산과 LG, 넥센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안치홍



이용규



날았다 이용대 한국 서른쪽 남자 복식의 '절대강자' 이용대(삼성전기, 왼쪽)가 정재성(삼성전기)과 짝을 이뤄 11일 오후 전남 화순군 화순화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1 빅터코리아오픈 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한국 고성현(김천시청)-유연성(수원시청)조를 만나 공격을 하고 있다. 이용대-정재성 조는 0-2로 패해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용대·정재성 4연패 좌절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 고성현·유연성조에 저 준우승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 조가 2011 빅터코리아오픈 그랑프리골드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복식에서 준우승에 그쳤다.

세계랭킹 2위인 이용대-정재성 조는 11일 전남 화순군 화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자복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4위인 고성현(김천시청)-유연성(수원시청) 조에 0-2(15-21 22-24)로 패했다.

이번 대회가 열린 화순이 고향인 이용대는 2008년 대회부터 정재성과 호흡을 맞춰 3년 연속 남자복식 우승을 차지했지만 어렵게 금메달을 놓쳤다.

태극전사까지 맞붙은 결승전에서 스코어는 0-2로 고성현-유연성 조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 펼쳐졌다. 정재성의 어깨 상태가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고전한 이용대-정재성 조는 1세트부터 실수가 겹치면서 15-21로 내렸다. 2세트에서도 14-18로 끌려가던 이용대-정재성 조는 뒷심을 발휘하며 내리 5점을 뽑아 19-18로 역전에 성공해 관중의 큰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20-20 듀스 상황에서 치열한 랠리를 이어간 이용대-정재성 조는 끝내 22-24로 2세트마저 내주며 고성현-유연성 조에게 금메달을 안겼다. /연합뉴스

'코리안 좀비' 정찬성, 호미닉에 1R 7초 KO 승

UFC 역대 최단시간 KO

'코리안 좀비' 정찬성(24·코리안탐탐·사진)이 종합격투기 대회인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에서 최단시간 KO 승을 거두고 2연승을 달성했다.

정찬성은 11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의 에어 캐나다 센터에서 열린 UFC 140에서 페더급 강자 마크 호미닉(35·캐나다)을 1라운드 7초 만에 꺾었다.

호미닉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왼손

훅을 날리면서 전진했다. 강펀치를 뒤로 물러나면서 피한 정찬성은 가드를 올리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던 호미닉에게 오른손 카운터 펀치를 적용시켰다. 호미닉이 충격을 입고 쓰러지자 정찬성은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속사포와 같은 파운딩 펀치를 퍼부었고, 허브 딘 심판은 곧바로 경기를 중단시켰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허부언더코팅,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빔더,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비뒀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족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족시트

최저가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2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